

한우가격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촉진 활동 강화를 통해
한우가격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협, 대형유통업체, 축산기업조합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전개
-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가격 부담 해소
- 소비자와 생산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우 가격 제공



한우에 대한 인지도 증대를 통해
한우소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한우의 우수한 기능성, 안전성, 신뢰성 홍보
-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홍보 및 급식 확대
- 기업체 연계 소비촉진 및 판매 확대



한우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및 R&D사업 강화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3월호



기획특집

새정부에 바라는 한우산업

포커스

전국한우협회 회장 취임식
취임 인터뷰-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슈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

현장르포

2013 한우농가의 현주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CONTENTS

한우자조금 2013. 03



기획특집 03-05

새정부에 바라는 한우산업

포커스 06-09

전국한우협회 회장 취임식

취임 인터뷰-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슈 08-09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

지상중계 10

한우가격안정 국회 토론회

릴레이인터뷰 11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현장르포 12-13

2013 한우농가의 현주소

강원도 춘천 한우번식 농가 이상운 씨

Information 14-17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Zoom-in 18-19

4월 축산관측

Bravo! Life 20-21

봄철 불청객-춘곤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2

달라지는 노령연금 Q&A

애독자코너 & 전문점소개 23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89호 발행일 2013년 3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한우산업**

‘농업 직접 챙기겠다’는 새정부 믿어보자

사이클 긴 한우산업, 적절한 발전대책 마련해야



축산업은 사상 초유의 가격 폭락과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높아져가는 생산비, 강도를 더해가는 각종 규제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폐업과 전업으로 농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한우 농가로서는 근근히 버티는 게 고작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가운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의 농업 전문가이며 부처 명칭에도 축산이 포함됐다.

새정부에서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창고인 축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우농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기획특집



변화 2013, 상생 한우산업

중장기적 대책 수립해야

학계 전문가들은 향후 한우산업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우 값이 떨어진 후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 값이 오른 뒤 가격폭등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GSn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다보면 한우산업은 망가진다”며 “한우값이 떨어졌을 때 한우 값 폭등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한우 값이 올랐을 때 한우값 하락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산업의 사이클이 긴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본래의 목적은 물론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이사장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목적에 맞게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를 위해 피해보전 직불제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2002년 이후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12월 현재 305만9,000마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까지 상승했던 산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암소감축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3분기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우 암소의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번식농가 등 한우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암송아지 거래가격 약세로 농가 경영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장 시급한 문제

정확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수급불균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사육마릿수의 장기 변동성에 따른 대책 및 수입육에 대응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는 “새정부는 적정 사육마릿수 관리를 위한 중장기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축산물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측정보나 축산정책 등 한우 수급관리시스템의 기능도 강화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쇠고기이력제 등을 활용한 정확한 수급예측이 필요하고, 중기관측과 선행관측을 통해 자율적 사육마릿수 조절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암소 출하시 등급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암소 비육 사양프로그램 보급 등 암소브랜드 개발 지원, 한우고기 학교 급식 물량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수반돼야

최근 한우를 포함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는 물론 관련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유통·소비 등 축산업 관련 업계 모두가 함께 상생 발전하도록 상호협조도 필요하다.

한우고기는 수입육과 차별화된 고급육 시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축종에 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가 적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9만 9,932톤), 호주(12만3,962톤), 기타(2만8,830톤) 등 총 25만2,724톤의 쇠고기가 수입됐고, 공급 및 수요에서 수입육이 50~57%를 차지하는 등 연차적으로 수입육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우고기의 품질향상 노력을 지속해 고급육 시장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우

농가의 소득창출은 물론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한우보다 비싼 일본 화우(和牛)가 수출하고 있는 것을 롤모델로 삼아 한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최근 홍콩에서 한우고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한우에 대한 분위기가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내 유통가격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위생협정 문제만 해결되면 고급육 시장 공략이 가능해 새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육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진흥촉진기금 등이 마련·지원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현장의 목소리

황인식 전국한우협회 파주시지부장

현장목소리·의사전달 채널 필요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농가 신뢰제고

새정부에서는 농가의 의사가 청와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 농림수산위원회가 농민의 의사와 현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듯 학자, 정치인, 공무원뿐 아니라 농가나 농민단체가 포함한 의사 전달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그대로 전달될 때 진정한 의미의 농정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농정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국제 정세 등을 반영, 현실성 있는 정책 과제가 수립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큰 틀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세부적인 부분이 수립된다면 축종간, 지역간, 업종간 불화도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농가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쌓아왔다.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류에 따라 바뀌다보니 농가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한 신뢰도 제고가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농가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농가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커스



전국한우협회 회장 취임식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7일 2013년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이강우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을 추대했다.



“한우산업 발전과 협회 화합위해 뛰겠다”

이강우 제7대 중앙회장 만장일치 추대

전국한우협회 제7대 회장에 이강우 전 부산·경남도지회장이 선출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7일 2013년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전임 회장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중앙회장직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이강우 후보를 추대했다.

이강우 회장은 회장 선출 이후 취임사에서 “한우산업이 가장 어려운 이 때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오직 한우산업과 한우협회만 생각하고 회장직에 출마를 했는데,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대로 중앙회장이 된 만큼 앞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협회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우 회장은 선출 직후 조위필 전 충북도지회장을 부회장으로 지명하고 한우산업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취임
인터뷰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06 | 07

사료비·송아지 생산 안정제 · FTA피해보전 직불제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 조속히 마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높은 생산비, 침체된 소비시장 등 한우산업이 풀어가야 할 현안과제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물복지, 축사시설, 분뇨처리 등 환경 및 건축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7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현안과제 해결과 협회 단합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대의원 만장일치로 취임한 이강우 제7대 전국한우협회장을 만나봤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생산비 수준의 가격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한·미 FTA 피해보전 직불제, 무허가 축사 문제, 사료가격 안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의 부담이 큰 사료비 등 굵직한 현안뿐만 아니라 백신비용, GPS 관련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챙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나갈 방침이다. 또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납 및 학교급식, 대기업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에 대한 한우공급을 강화할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소비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암소위주의 소비촉진을 전개하고, 미경산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TMR 물류센터 등을 활용해 생산비 및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가가 사료비를 비롯한 생산비도 높은 가운데 낮은 출하가격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복안은?

최근 소값 하락과 농가도산 등 긴급하고 절박한 상

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협회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농가를 실망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지역 간 불협화음, 집행부와 이사회의 소통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대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방안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한우산업 구성원의 전체의견을 반영하는 집행부라는 인식을 관계기관에도 인지토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협회의 갈등을 승화시켜 단합과 화합으로 한우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은?

우선 지회장·이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실현되는 협회를 만들 것이다.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책TF팀을 설치·운영해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렇게 건의된 발전방안은 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우자조금사무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강화해 적절한 예산 수립과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집행은 물론 정책건의, 소비홍보활동, 유통감시, 교육 및 조사연구 등을 강화해 한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이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

축산규모 큰 시·군 조례 제·개정...건폐율 확대

42개 시·군은 60%로 확대 개정협조 요청



▲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순회설명회가 지역별로 진행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9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농가 1만7,720호 농가 중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7,925호로 전체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과 폐쇄 처분이 골자인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식량안보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3월 12일~20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 설명회'가 열렸다.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은 확대

환경부는 일단 가축분뇨법 등과 관련해 법률에

적법한 축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적극적인 협의 아래 가장 문제가 됐던 건폐율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토록하고 있으나

162개 시군 중 실제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곳은 104곳으로 제각각인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축산규모가 큰 시·군에 대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하고 조례 미 제정 8개 시·군에는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는 한편 60% 아래로 건폐율을 운영하고 있는 42개 시·군은 60%로 확대 개정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운동장이나 축사 등의 지붕으로 일명 '선라이트'로 불리는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이 과다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었다. 이에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가하

인터뷰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2011년 9월 조사농가 절반이 무허가축사 보유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지붕, 합성수지 재질 사용토록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고 2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기로 했다.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현재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해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와 상호 중복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허가가 불가했던 점도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젖소에 한해서만 운동장을 허용하던 것도 개선돼 한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실행계획

이번 순회설명회를 진행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 9월까지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인·허가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오는 10월부터 '15년까지 운영하고, '16년부터 무허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



“개선대책은 소급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개선내용 발표에 앞서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은 1992년 행해진 무허가 축사 추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1992년 당시 행해진 무허가 축사 추진은 농지법, 건축법 등의 타법에 위배되지 않는 무허가 축사를 소급적용 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선대책은 소급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의 반 이상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재발방지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축산업 정책 지원체계를 보강해 통합적인 산업 진흥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 규제수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규제와 진흥 주체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중계



한우 가격하락 국회 정책토론회



소비활성화 등 특단대책 필요 ‘한목소리’

수매통한 암소 사육마릿수 감축, 해외지원사업과 연계

범정부적 소비촉진행사·군납·학교급식 확대방안 마련

지난 3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최규성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축산물, 초유의 가격하락 돌파구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최근 축산물 가격 동반하락과 관련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선 소비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재검토 요구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자급율 목표 부재, 위생업무 식품안전처 이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정책 부재 등으로 한우농가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해는 도축마릿수가 85만여마리까지 증가했음에도 경기부진으로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수입자유화로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농가에서는 암소 및 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우암소 수매를 통한 암소 사육마릿수 감축이 해외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을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처녀암소 비육지원사업(미경산우 브랜드사업)을 활성화시켜 적정 사육마릿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폐업 지원규정 완화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범정부적인 소비 촉진행사나 군납,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료값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 TMR원료 물류센터를 설치, 지역 조사료자원을 확보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이를 위한 사료작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과 안정기금, 사료곡물의 해외기지 운영, 사료작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실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 지원 규정을 완화해 현실적인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료 및 가격 안정장치 마련 주문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김용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등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강화, 물가관리 차원에서의 통제 자체, 각종 기금 등 사료 및 가격 안정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자급율 목표보다는 농가의 소득창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과 수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업 근본적 체질개선 취약부분 지원 만전

가축분뇨 자원화 · 무허가 축사 개선 ·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축산농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운의 뎨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은 “국회에서 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새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달성키 위해 축산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 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정했다”면서 “축산업 회생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핵심과제들이 조기에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4월, 6월 국회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처럼 농축산물 가격폭락 때는 미온적 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대량 방출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미, 한·EU FTA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기”라며 “무분별하게 추진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FTA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우산업과 관련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안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실제 쇠고기 수입자유화, 한·미FTA, 한·EU FTA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우농가들이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도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제도가 지난해 초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마릿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현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영세·중소 한우 번식농가의 축산 포기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때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원상회복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안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축산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확대, 방역 관리체계 구축,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등 시장개방에 취약한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

현장르포

2013 한우농가의 현주소-강원도 춘천 한우번식농가 이상운 씨를 만나다



“소 키워 빛만 남아... 농가가 살아야 산업이 산다”

소값·사료값 안정으로 농가에게 희망을

소규모 농가 치솟는 사료값 감당하기 버거워

영세해서 프로그램 사육도 현실적 무리

소규모 단위 벗짚 포장·판매도 시급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느는 건 빛뿐입니다.”

춘천에서 20년 가까이 한우를 키워온 이상운 농가. 송아지를 팔면 괜찮은 가격을 받아 한우산업에 뛰어든 것이 즐거웠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영세농가 대부분 한우산업 떠났다

가격이 형편없는 가운데 사료값은 너무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 농가처럼 소규모 농가로서는 치솟는 사료가격을 감당하기만 해도 버거운 현실이다

이 씨는 송아지를 포함 한우 9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다른 농가들의 경우 1~2마리를 키워 번식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라 직접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주변 농가들은 소규모 영세농가인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대부분 폐업이나 전업을 했다”며 “기껏 길러봐야 사료값으로 다 들어가고 농가에 남는 것은 다 갚지 못한 빛뿐이다”고 푸념했다.

외상값 갚기 버거운 게 현실

영세해서 프로그램에 따른 사육이 어렵고, 가급적 저렴한 사료를 농협에서 외상으로 구매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뜩이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 출하를 해도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사료비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씨의 경우 사료비 부담으로 축협에서 20kg TMR사료 한포대당 5,600



원하는 가장 저렴한 사료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가격이 부담돼, 외상값을 갚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값마저 낮다 보니 언제나 생산비 아래에서 출하를 하게 되고, 해마다 빚만 늘어가는 판국이다. 심지어 올 가을에는 벗짚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다.

가격도 지난해 600kg 두 마리를 출하했지만 수취가격은 7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올해는 생체 580kg로 3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무리 길러봐야 사료비조차 감당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소규모 농가라 벗짚 구하기도 어려워

“지난해부터 송아지 값이 너무 떨어져 10개월 길러봐야 백 몇십만원 받는 게 고작입니다. 2~3년 전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8개월 길러봐야 150만원 받으면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규모 농가라 벗짚 구하기도 어렵다. 벗짚을 소규모로 판매하지 않다보니 구매는 물론 운반조차 어려워 소규모 단위 포장과 판매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농가 여럿이 모여 큰 단위로 구매도 해봤지만 요즘은 사료가격이 오르고, 벗짚을 구하기도 어려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송아지 가격 최하 200만원 유지해야

“소값과 사료가격이 적정하게 안정돼야 농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버티다가 폐업한 농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최하 200만원은 넘어야 합니다. 사료가격도 안정돼 농가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농가가 소를 키워 빚만 남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한우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는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농가가 살아야 산업이 살 수 있습니다.”㉞



Information

한우자조금이렇게 쓰입니다

2013년도 자조금 354억7,000여만원 조성 예상

한우자조금, 수급안정위한 공격적 마케팅

한우자조금은 지난 12월 3차 관리위원회 및 21일 제 2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에 따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한우자조금은 출하물량 증가예상에 따른 세입 증액으로 인해 354억 7,000여만원 조성될 예정으로, 수급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등을 주요적으로 진행해 수급조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지난 설명절 기간동안에는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성황리에 마쳤으며 TV 광고 및 PPL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우사랑조인식을 체결해 등을 진행해 한우소비촉진을 유도했다. 향후 소비촉진계획은 아래 [표1]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한우암소 및 2등급 이하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표1] 2013 월별 소비촉진행사 연간 계획(안)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슈		봄나들이	가정의달	호국의달	여름휴가		추석명절	캠핑&등산	한우의날	연말연시
프로그램	할인 판매	정육할인 직거래장터	등·안·채 불고기	전부위 할인판매	전부위 할인판매		선물세트판매 직거래장터	등·안·채 불고기 직거래장터	전부위 할인판매	부산물 할인
	이벤트		패밀리리레스토랑 연계 이벤트	금요일은 한우 먹는날 대도시 홍보			기업체 연계 소비촉진	금요일은 한우 먹는날 대도시 홍보		
타겟		전국민	전국민, 매장방문객	전국민	전국민		전국민,기업체	캠핑 & 등산족	전국민	40대이상
홍보		TV자막광고	TV자막광고, 신문광고	TV자막광고	TV자막광고, 온라인광고		TV자막광고, 신문광고, 온라인광고	TV자막광고	광고, 온라인광고	TV자막광고
중점 판매		봄	가정의달	다이어트	휴가철		선물세트	캠핑	부산물	회식
		이유식 아기 이유식 선호부위	가족식사 선호 부위 소비촉진	해당부위 소비촉진	선호부위		추석선물	선호부위	사골 등 건강한 겨울나기	선호부위

※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대행사 선정 후 프로그램 추가 예정

2011년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286톤 추가수요 발생

한우자조금 1원당 16.11원 소득 증가

한우자조금 1원당 16.11원의 평균 투자 이익률이 발생한다. 지난 14일 한우자조금은 2011년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우자조금은 2005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우소비촉진 광고 효과 분석한 결과 448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월 평균 약 286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해 광고비 1원당 16.11원의 평균 투자 이익률을 보였다.

소비자, 한우광고로 긍정적 이미지 심어

소비자는 한우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활동에 대해 76.4%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한 소비자 중 82.8%가 TV광고를 통해 한우소비촉진광고를 접촉했고, 60.8%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우를 구입하는 비율이 70.1% 증가해 한우의 소비촉진에 일조했다.

광고를 통한 소비패턴 변화의 이유는 '같은 국내산이라도 한우가 좋고 생각해서'가 48.2%, '광고를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게 되어서'가 30.9%를 차지하여 80%가량의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한우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치사항으로는 가격인하(37.7%), 소비촉진과 홍보(20.7%), 한우의 위생적인 처리 및 유통(16.5%)으로 나타났으며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로는 TV광고(69%), 홍보 및 행사(12.3%), 시식회(7.9%)순으로 밝혀졌다.

농가, 자조금이 소득향상에 기여

농가는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해 66.7%가 지지하며, 69%가 자조금 활동이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5.4%의 농가가 자조금을 활용한 농가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정보제공 활동이 도움이 된다(60.7%),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하다(59.6%)고 답했다. ㉮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부천 순천향병원, 한우사랑 기업 조인식

임직원 추석선물세트 한우로 결정

한우시식회 등으로 우수성 알려

한우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뜻을 모았다.

‘한우사랑 기업 캠페인’ 일환

한우자조금은 부천시 대표 종합병원인 부천 순천향병원과 ‘한우사랑 기업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지난 2월 25일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조인식은 부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병원인 부천 순천향병원 임직원들의 사기를 충전하고,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려 한우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부천 순천향병원은 임직원 추석선물 1,500세트를 한우선물세트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병원내 직원 및 환자가족 대상 행사 진행시 한우시식회 등 한우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우 안전성 홍보 ‘시너지효과’

강성기 위원장은 “부천시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천 순천향병원과 한우사랑 기업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향후 한우를 이용한 건강요리법을 환자가족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우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우둔갑판매 꼼짝마라!

2012년 한우유통감시단, 3만여업체 감시활동



한우유통감시단은 지난해 정육점 등 유통업소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등의 감시활동을 전개해 한우로의 거짓표시판매 방지를 위한 활약을 펼쳤다. 지난 한해동안 정육점 9,839개소와 음식점 1만9,534개소 등 총 2만9,373개소를 점검해 단속을 진행한 결과, 87건의 단속실적과 73건의 위반사항을 신고했다. 87건의 단속실적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개체거짓표시, 표시사항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표시와 혼동표시가 31건,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변조, 거래명세표 미보관이 10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올해는 한우유통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감시원 평가제를 도입한다. 분기별로 감시원의 실적 등을 평가해 효율적인 감시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더욱 활발한 유통감시를 통해 한우로의 둔갑판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 2012년 유통감시단 활동내역

지역		총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활동내용												
정육점 등 유통업소	활동업소수	9,839	1,776	1,951	406	675	1,233	342	718	1,014	1,420	304
	등판서 미비치	441	12	78	75	0	23	4	45	3	158	43
	원산지 미표시	102	7	29	2	0	20	0	2	0	15	27
	축종 미표시	111	16	43	1	0	15	0	7	0	14	15
	부위명 미표시	109	20	56	3	1	14	1	4	0	4	6
	등급 미표시	308	31	92	6	9	28	0	35	20	33	54
	개체번호미표시	368	33	63	4	9	9	1	26	22	154	47
	도축장미표시	207	19	53	7	10	24	0	15	5	31	4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활동업소수	19,534	4,479	4,566	852	1,032	1,173	1,922	1,457	1,866	1,457	730
	원산지 표시	일부 미표시	671	120	205	7	0	49	25	4	13	147
		전부 미표시	289	43	106	2	0	32	3	0	8	23
		허위 표시	59	4	4	0	0	0	2	0	48	1
	축종 표시	일부 미표시	403	93	102	6	0	31	27	16	29	84
		전부 미표시	416	118	140	8	0	38	2	10	8	25
		허위 표시	2	0	0	0	0	0	0	0	2	0
	거래명세표 미보관	524	99	91	2	0	12	25	41	29	67	158
	등급판정서 미보관	2,610	338	277	18	0	44	41	268	1,309	235	80
	수입산증빙 자료미보관	3,542	734	1,007	8	0	64	208	7	824	563	127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krei.re.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암소 도축 증가·송아지 생산 감소

6월 한·육우 사육두수 작년보다 다소 감소 전망

도축 증가로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12월 306만마리보다 감소하나 전년 동월보다는 2.7% 증가한 302만마리로 예상된다. 암소 감축과 전년보다 낮은 송아지 생산 잠재력 영향으로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311만 마리보다 다소 감소한 308~310만마리로 전망된다(통계청 기준).



암소 감축으로 1~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20.8% 증가
4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수입은 감소

암소감축사업의 영향으로 올해 1~2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기간보다 20.8% 증가한 18만3,000두였다. 이중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52.3% 증가한 10만 두, 거세우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7만5,000두였다. 한·미 FTA 이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를 노리고 2012년에 수입된 물량을 이월하면서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크게(35.8%) 증가한 2만8,000톤이었다. 그러나 2월에는 7% 감소한 1만8,000톤이었으며, 칠레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검역기준).

암소 감축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4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5만6,000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육 재고(4만3,000톤)가 여전히 많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1만7,000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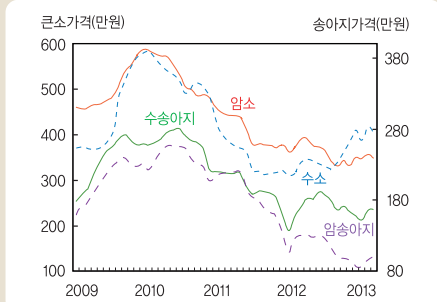
4월 도매시장 가격 약세 전망 한우고기 소비촉진 고민 절실

2012년 말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송아지 가격은 입식의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작년 12월 86만원보다는 상승하였으나, 2월 100만원보다는 다소 하락하였다. 3월 14일 현재 우시장 암송아지 전국 평균가격(6~7개월령 기준)은 97만원, 수송아지 가격은 162만원에서 형성되었다.

비수기인 3월(1~14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2,268원(지육kg)으로 전년 동월 14,478원, 평년 14,396원보다는 14~16% 낮은 수준이다. 암소감축에 따른 부담으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월과 비슷한 12,000원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월 14,488원, 평년 14,499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1,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 한우고기 소비 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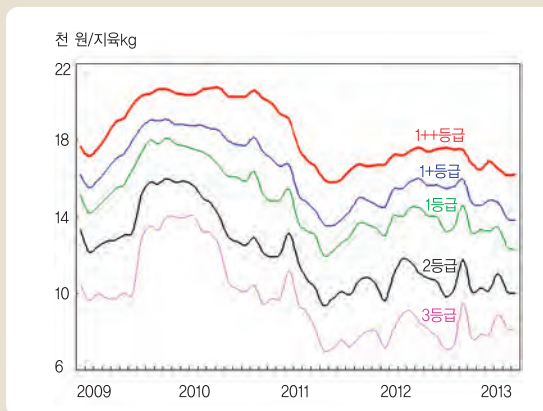


◆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내년 7월부터 지급

만 65세이상 전체노인의 70% 대상...가입기간 따라 차등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에게 월 4~20만원씩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또 지급 기간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과정 등을 감안해 7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신설되는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 / 콜센터 : 129번 문의]

Q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Q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다. (201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 소득·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 10. 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Q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3. 1 ~ '13. 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3. 4 ~ '14. 3월	155,400원(예상)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6.8만원 미만	126.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3. 1 ~ '13. 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3. 4 ~ '14. 3월	97,100원(예상)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서 신청하면 된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다.

● 신청시 제출서류

※ 해당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op.mw.go.kr>)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관련해 부녀회장을 사칭, 대리신청을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기초노령연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op.mw.go.kr>) > 지자체 시군구별 담당자 확인



Bravo! Life



봄철 불청객 '춘곤증'

춘곤증, 우리 몸이 보내는 빨간 신호등

40대이후 간 질환 · 당뇨 증상과 혼동하기도

우리가 말하는 춘곤증은 질병 용어가 아닌, 봄에 많이 느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는 시기에 우리 몸이 계절에 맞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생리적인 일련의 증상들을 통틀어 춘곤증이라 한다. 봄의 불청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춘곤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snuh.org>) 의학정보실]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심한 춘곤증은 간 질환, 당뇨, 압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낮 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봄에는 활동량이 증가하고 실외생활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생체리듬을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만성피로, 면역저하, 수면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춘곤증은 질병 용어가 아닌, 봄에 많이 느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는 시기에 우리 몸이 계절에 맞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생리적인 일련의 증상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봄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은 겨울철보다 최고 10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양 불균형들은 춘곤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춘곤증의 원인은 잘못된 개인의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불규칙한 식사시간, 인스턴트 식품, 폭식, 과로와 충분하지 못한 휴식,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춘곤증을 이기려면?

비타민 · 미네랄 풍부한 봄나물 섭취...규칙적 수면 · 숙면 취해야

춘곤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는 것은 금물. 또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비타민이 부족해 춘곤증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는 싱싱한 제철 봄나물이 으뜸으로 꼽힌다. 달래, 냉이, 두릅, 씩, 취나물 등의 봄나물에는 입맛도 돋우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춘곤증 예방에 효과적. 밥은 흰 쌀밥보다 현미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이 좋다. 여기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는 다시마, 미역, 파래, 김 등의 해조류와 단백질이 많이 든 생선, 두부 등을 곁들여 먹으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밤에 잠을 꼭 자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잠자는 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폭신한 베개 등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나른한 오후시간에는 팔을 최대한 뻗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것도 춘곤증 예방에 좋다.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2 | 23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2011년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우자조금 1원당 투자 이익률이 16.1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중 76.4%가 한우자조금 소비촉진활동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히며, TV광고를 통해 가장 많이 한우 소비 촉진을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광고를 통해 같은 국내산이라도 한우가 좋다고 생각하며, 우수성을 알게됐다고 답했습니다. 농가 또한 66.7%가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해 지지하며, 69%가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한우자조금은 2012년 6월까지 총 448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월평균 〇〇〇톤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켜 한우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우자조금을 통한 한우 추가 수요 발생량은 얼마일까요?** 한우자조금 3월호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2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성호(충남 예산군), 윤석렬(강원 철원군), 정석인(전남 담양군),
오상근(충북 영동군), 고명신(경기 김포시), 배현숙(충남 청양군)

한우 맛집 소개



연양한우불고기단지

전화 : 052) 262-1322

주소 : 울산 울주군 연양읍내 일원



넉넉한 인심과 더불어 암소 한우의 진미를 선사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양불고기단지'는 연양에서 밀양·석남사 방향)쪽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길가 좌우로 한우 불고기집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2006년 전국 최초로 한우 불고기 특구로 지정받은 이곳은 모든 메뉴를 냉동하지 않은 생고기로 내기 때문에 그날그날 도축 현장에서 바로 들여온다. 혹여 그날 팔다 남은 고기가 있다면 주저없이 얇게 썰어 냉동한 다음 양념불고기로 변신시킨다. 살코기를 다져 양념한 '떡갈비'가 이곳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음식인데 숯불에 석쇠로 구워 부드럽고 감칠 맛이나 부모님께 대접하는 효도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